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니다.  
인도불교동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불교)



◇새만금은 더이상 조개와 철새들의 낙원이 아니다. 사람들 발길마저 금지시킨 새만금 갯벌 철조망 사이로 낙조가 아름답다(사진제공=두레생태기행). 사진인은 간척사업 반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제공=부안인).

## 갯벌은 생명터전 ... 이제라도 공사 멈춰야

### 농업용지 3만ha 조성...방조제 90% 진척

**새만금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까지 총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 농업용지 3만여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서울 여의도의 140배(1억 2천만평)에 달하는 간척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한 뒤, 5억3500만ha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은 91년 김대중-노태우 청와대 영수회담시 추경예산에 200억원이 반영되면서 본격화했다. 이미 1조 4천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고, 예정대로 농지와 관공단지 등을 개발하게 되면 3~6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현재 방조제 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돼 4.4km만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정숙 교수는 "개발론자들은 수질개선비용과 갯벌의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경제성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철철 교수(명지대 건축대학장)의 '바다도시'안이 대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김정숙 녹색평론 발행인은 토론회에서 "바다도시 안도 갯벌을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경과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노태우 후보 새만금개발 공약
1991년 11월 18일	새만금 간척사업 시작
19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실사업으로 규정 전면 재검토 결정
1998년 7월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발족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본격화
2001년 3월 17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발족
2001년 5월 24일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301배(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2001년 5월 25일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및 새만금사업강령 결정
2001년 10월 12일	새만금 생명학회 창립대회(조계사 문화교육관)
2002년 11월 20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4차 캄보디아 당사자 총회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301배(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2003년 1월 22일	새정부의 친환경정책을 염원하는 생명, 평화, 환경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대한승공회 서울대성당)

### 새만금 갯벌 살리기 대화마당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종교·문화·예술·사회단체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7일 원주 토지문화관에서는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김영락 목사, 박경리(소설가), 김지하(시인), 임옥상(화가), 김정철(녹색평론 발행인) 등 100여명이 죽어가는 갯벌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대국민 홍보 사업을 결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당선자는 11일 전주에서 열린 국정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강행 의사에 대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사업 중단을 먼저 선행한 후 전라북도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생명평화연대에서는 이날 말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 조사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갯벌의 중요성과 간척사업의 문제점**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 갯벌이다. 갯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갯벌이 강물이 흘러드는 하구 갯벌이다. 새만금은 백합, 동족, 맛 등 우리나라 조개류의 자궁이자 어민들 삶의 기반이다. 또한 새만금은 저어새,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천연기념물 18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8종 등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도래지인 마지막 보루다. 뿐만 아니라 하루 25만톤의 유기물, 수십만톤의 하수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개발론자들은 이런

문제점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호는 어떤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영양화가 심한 호수가 될 것으로 예측돼 썩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됐다.

김정숙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다면 간척지 개흙에다 토사를 그 만큼 더 매립해야 하는데 그 많은 토사를 가져오려면 우리나라 수많은 산들이 또 다시 수난을 당해야 한다"며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001년 8월 22일 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

### 멸종위기 철새 도래, 수십만톤 하수 정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공사 강행 시사

원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아직도 늦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소설가 박경리 씨는 "현재 건강이 안좋은 상태지만 환경문제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나도 산에 올라가 비닐 한 장 줍는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해양부 장관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시키든가 매립 면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향 수원대 철학과 교수는 "새만금이 실패로 판가를 낮을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사유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의 발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